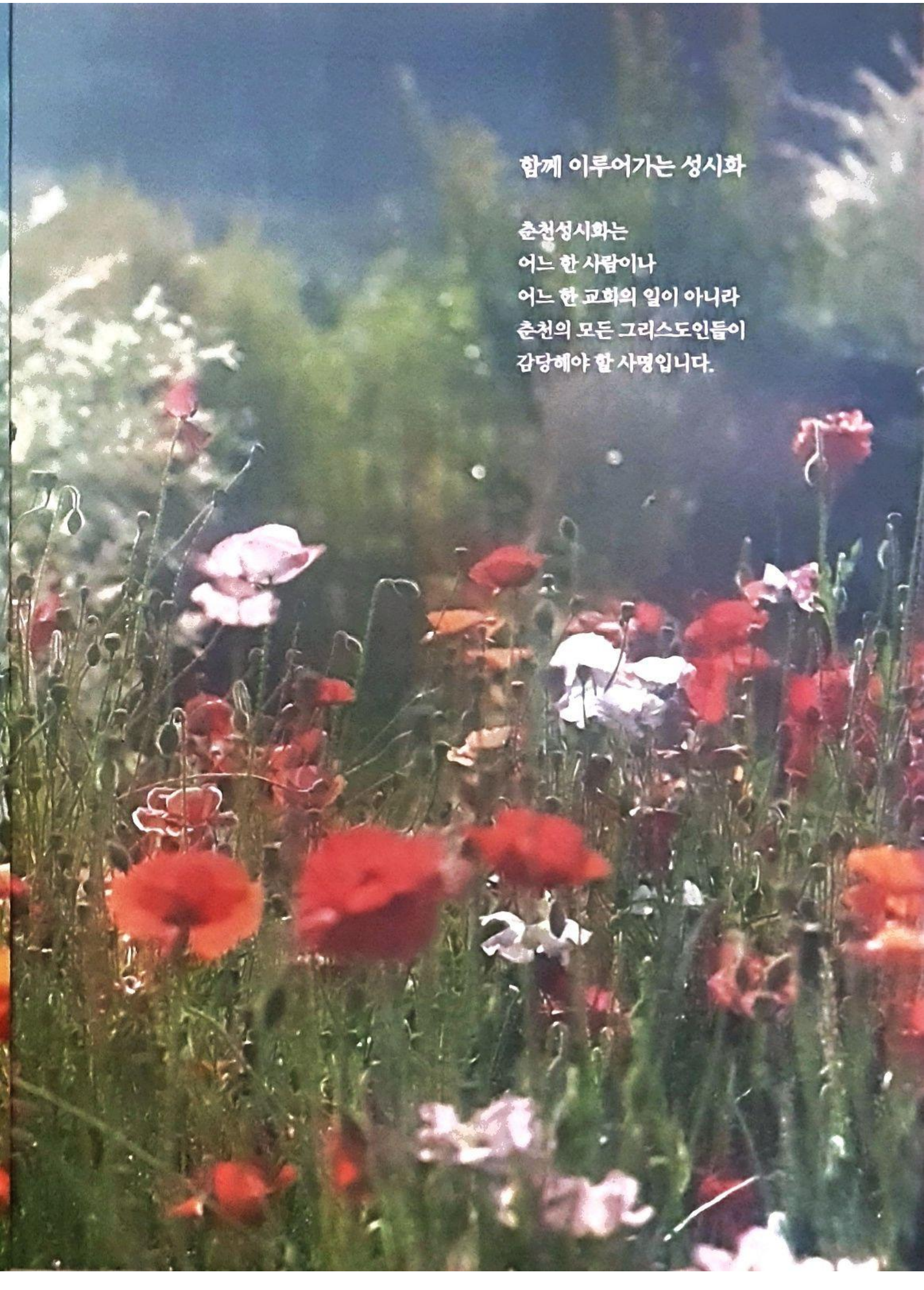

Yoorlyoung Ar
1998. 9. 15 창간
춘천
성시
vol.199
6
2015
특집1 | 블레싱 춘천
특집2 | 복음적 평화통일의기반을
어떻게마련할것인가
통 일 | 41차 춘천 쥬빌리
선교1 | 박철환 선교사
선교2 | 김홍주 선교사
기 획 | 네팔 지진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시화운동은 Made in Chuncheon입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모델도시입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성시화운동은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되어
전국과 전 세계의 도시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성시화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40여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명에 붙들린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또 다른 사명자들을 세웠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을 주 오실 날까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역은 성시화, 선교, 통일을 사역주제로 삼아
성시포럼, 블레싱춘천, 성시화선교대회, 매거진 발행을 하고 있으며,
전국 도시 성시화운동과 춘천교회와 지역사회,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신청은 금액은 자유롭게 자동이체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MS신청 및 광고 문의 : 033-250-1260~1

Editor's Letter

오늘의 삶과 어제의 역사는 동떨어지지 않는다. 어제의 역사를 무시한 민족치고 오늘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민족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강조하여 왔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역사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다. 형식적이며 구체성이 없는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교회와 교계의 모습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을 때가 많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평화의 역사이기보다는 전쟁의 역사였다. 지난 세기만 하더라도 수 천명을 죽이는 세계대전이 두 번씩이나 있었고, 우리 민족에게도 1950년 6월 25일은 잊을 수 없는 아픔과 비극의 날이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악을 정당화하고, 자기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념을 만들어 갈등을 점점 심화시키더니 결국에는 동족을 무참히 살상하고, 17개국의 인간들까지 끌어들여 함께 죽였다. 이런 이 민족의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얼마나 큰 인내와 노력과 지혜와 기도가 필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평화는 낙관주의에서 오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를 갖는 공산체제가 붕괴된 것을 생각해 보라. 인간의 뒹됨이나 탐욕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선 인간의 죄성을 진지하게 전제하고 해결의 길을 나서야 한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 길을 자발적으로 통과하는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의 평화가 이것을 증명한다. 유대인들은 아픔 역사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한다"고 말한다. 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 원수가 되도록 세뇌하고 가르쳐왔다. 상호 이해를 위해 반성하고 교훈을 찾고 새로운 역사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호국의 달 6월, 민족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예수의 평화를 이 땅에 심기 위해 회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자.

편집장 **최영조**

삶의 자세가 좋아야 한다

신학자와 담소 중에 나온 이야기가 마음에 닿아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이다. 첫째는 운명 중심적 세계관으로 사주팔자가 좋아야 잘 산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만사는 심는 대로 거두기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 세계관은 일이 잘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둔다고 생각하여 교만해질 수 있고, 잘 안되면 기쁨을 상실하고 좌절할 수 있다. 셋째는 감사중심, 은혜중심적 세계관으로 하늘의 맹수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날개가 튼튼해서 이기도 하지만, 공기가 있어 부력을 받아서 날 수 있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먼저라는 말씀이다.

요즘 화제가 되는 뉴스, 사건을 보면 사람은 뭔가 잘 될 때 더 잘되는 것보다 오히려 망가지는 것을 보고 듣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머리가 좋아야하고, 많이 배워 아는 것이 많아야 하며, 근면 · 노력하는 투철한 정신, 그리고 삶의 자세가 좋아야 한다고 한다.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머리 좋고, 많이 알고 노력하는 요소는 10%정도이고, 90%가 삶의 자세에 따라 성공한다는 것이다. 삶의 자세 중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으뜸이 될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한 구절이 생각난다. 존.F.케네디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 연설 중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지 물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음에 새겨 보자.

춘천YMCA 이사장 백형기



Contents

June 2015 vol.199

Editor Letter 003

칼럼 004







006 **캘린더**

008 **특집1** 블레싱 춘천

010 **특집2** 복음적 평화통일의 기반

013 **예수안에서 본 예술** 내 기도가 이루어지이다

014 **선교1** 박철환 선교사

018 **시** 6월이 오면

020 **선교2** 김홍주 선교사

024 **통일**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027 **기획** 네팔 지진

030 **다음세대** 본질을 회복하라

032 **시사** 강원학교인권조례

035 **인물** 채병조 교수

038 **설교** 의로운 삶 깨끗한 손

040 **영화이야기 96** 더바이블과 더AD바이블컨티뉴스

042 **예수의 미소** 보양식 육개장

044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틱 장애

045 **음악산책** 드보르작 교향곡 - 신세계로부터

046 **5월을 돌아보며**

051 **만평 / 예향**

052 **선교단체 기도제목**

052 **알려드려요**

※ 표지그림 재능기부 : 유명애 수채화가
(작품명 : 찬양)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130

「 이달의 기도제목 」

♥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열강들 틈에서 오랜 분단의 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뿌리 깊은 피해의식을 거두어 주시고 극심한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성대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의 영을 부으사 한국교회가 마음을 찢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위에 주의 영을 부으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SUNDAY	MONDAY	TUESDAY
	1	**2**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illegible] 저녁 7시, 동부교회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I** **저녁 4시 주향교회**
7	**8** [GBT] ~11 선교학교 평가회 [인터콥] 월드미션 저녁 7시, 효신교회	**9**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illegible] 저녁 7시, 동부교회 강사 : 공인현 선교사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14	**15**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2차** **저녁 7시, 주향교회** **강사 : 주승현 박사** [IVF] ~19 제2차 지방사역협의회	**16**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illegible] 저녁 7시, 동부교회 강사 : 회복의 아버지 (김준환 간사)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21	**22** [GBT] 비전기도회 저녁7시, 예담교회 [IVF] 전임사역자모임 ~23 [CCC] ~26 CCC전국 여름수련회 장소 : 평창 휘닉스파크	**23** [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illegible] 저녁 7시, 동부교회 강사 : 묵상-김수철 목사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4시 주향교회**
28 [GBT] 춘천지부 연합예배 저녁7시, 우리교회 [CCC] ~7.12 일본후쿠오카 단기선교	**29**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 하천무대** [JDM]~7.4. 전국대학여름집회 [GBT]~7.4.GBT 총회 [IVF]~7.4.강원연합여름수련회 [예스컴]~7.1. 스텝 수련회	**30** [예수전도단] ~7.4 미션컨퍼런스 장소 : 웰리힐리파크 [ESF]~7.4 전국 ESF 학생여름수양회 장소 : 천안 고려신학대학

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본부] 편집회의] 캠퍼스 사역위원회 일 IVF회관	**4**	**5** [성시본부] 조찬이사회 [예스컴] 전스텝 회의및 기도회 저녁 6시, 예스컴센터	**6**
] 캠퍼스사역위원회 IVF회관	**11** **[교역자 연합회]** **8.15 예배준비 임원회의** **오전 7:30, 새순교회**	**12**	**13** **[부부학교] ~7.14** **순복음춘천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장소 : 순복음 춘천교회
	18 [예수전도단] ~7.17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안내 **[아미교회]** **1주년 기념 1일세미나** **오전10시, 오후2시, 저녁7시30분** **강사 : 김인중 목사**	**19**	**20** [예스컴] 프레이즈 춘천 저녁 6시, 중앙성결교회 드림홀
터콥] ~27일 년대학생 신교캠프 소 : BTJ열방센터	**25**	**26** [성시본부] 블레싱 춘천 저녁7시, 순복음춘천교회 [CCC] ~27 도시전도(춘천지역)	**27** [GBT] 청년부 선교학교 저녁7시, 예담교회 **[하늘소리선교센터]** **청소년찬양집회** **오후 4시, 하늘소리선교센터**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Blessing Chuncheon 2015

블레싱 춘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1장 11절

2015년은 우리 민족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해이다.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70년은 성경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회복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특별히 6월은 국가적으로도 호국 보훈의 달로, 민족이 겪는 환란에 맞서 수많은 선현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를 지킨 얼을 기념하는 달이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던 이날 민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한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발생했다. 6.25가 발발하고 남한은 북한에 의해 파죽지세로 몰리던 상황에서 그나마 춘천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3일간을 지켜낸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작 3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방어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 아스라한 상황을 가끔이라도 들을 때면 전율이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성

도들과 교회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을까! 6.25를 전후해서 우리가 블레싱 춘천을 갖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블레싱 춘천(Blessing Chuncheon)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의 영적 전선을 형성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춘천 땅을 축복하는 연합기도의 시간이다. 블레싱 춘천 연합 기도회가 처음으로 있었던 것은 춘천 성시화 40주년이 되는 해인 2012년이었다. 그 후 3년이 지나 올 해로 두 번째로 갖게 된다. 생각 같아서는 매년마다 가졌으면 좋겠다. 춘천은 유일한 분단국가(國家)의 분단 도(道)의 수부도시이다. 춘천이 변화되면 강원도가 변화되고, 강원도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한다. 하나님은 이 춘천 도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1972년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도시, 성시화의 비전을 갖고 달려오는 가운데,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수 백 곳에서 성시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축복된 결과를 주셨다.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터를 삼고 있는 춘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다. 축복은 창조의 원리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명하시며 그들이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신 6:22~27). 오늘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벧전2:9). 즉 축복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다.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세속화의 물결도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한 나라의 수도 한 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버젓이 허가를 얻어 이루어지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 양상을 빚고 있으며, 이슬람은 예고 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성큼 다가왔다. 즉 도시를 어둠에 물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급격하게 몰려오는 이때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때이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도시가 진흥한다"(잠11:11)는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 도시가 진정으로 축복된 헵시바와 쁄라의 생명의 도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병철
kokkos21@gmail.com



복음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난 4월 24일, 세계평화와 복음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평화한국」(대표 허문영박사)와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는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농업 · 축산 ·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대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 분야별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사례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농업 · 축산 · 산림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한 자리에

강원대 신승호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1부에서는 정규재 박사(전 연변과기대 교수)가 '농업 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전근우 강원대 교수가 '산림 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을 발표하고, 2부 사례발표에서는 박영권 교장(왕청 가나안농군학교)이 '대북 지원 사업 사례발표 및 방북 결과'를 보고하였다.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는 "최근 북한의 도발 등 안보위기 속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 축산 · 산림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대북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현재용 대표

특히 강원도와 춘천을 대표하여 농업 · 축산 · 산림 분야의 주발표자인 현재용 춘천농장 대표(사암교회, 피택장로)가 '축산 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송영한 강원대 교수와 이종헌 박사(늘푸른 홍천한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현 대표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농축산업 개발과 협력을 통하여 상호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관광, 지하자원과 남한의 자본, 기술,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먹고 사는 식량 문제 해결과 남한의 축산물 소비시장 확대 및 동북아 수출 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현 대표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측면만 아니라 이미 농축산업의 중요성은 각국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사르코치 대통령은 "농업은 우주 산업, 나노기술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였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이야말로 새로운 가치 창출산업이며 첨단 융복합산업의 중심"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농업은 식량, 국민사업, 문화경관, 휴양공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박사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이루어 중진국에 도달할 수 있으나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은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MBA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 특강에서 "학생들이 은퇴할 무렵에는 농업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산업이 될 것이니 농부가 되는 길에 도전을 해보라"고 충언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남북 축산업 현황을 비교해 보자.

· 남북한 경제규모 차이 국제통화기금(IMF) 2013년

구 분	남 한	북 한	비 교
예산규모 (억$)	1,894	58	32.6배
국민 총 소득 (억원)	12,759,460	334,790	38.2배
1인당 GDP ($)	23,328	283	41.7배
무역 총액 (억$)	20,674	68	158.7배
수출 액 (억$)	5,478.7	28.8	190.2배
수입 액 (억$)	5,195.8	39.3	132.2배

· 대한민국 정부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비교 2014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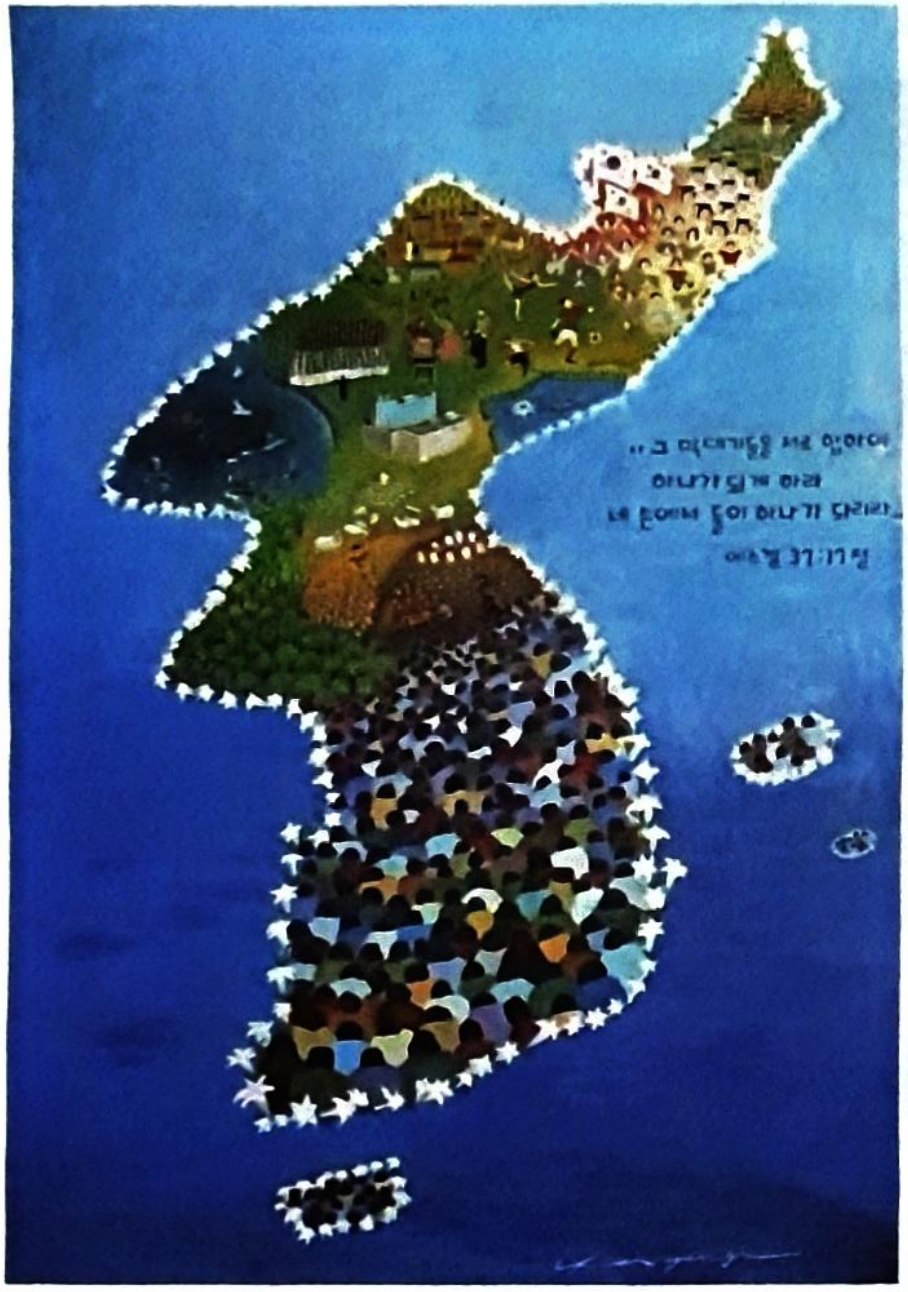
구 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
기 간	98.3~03.2 (60개월)	03.3~08.2 (60개월)	08.3~12.2 (60개월)	12.3~14.12 (22개월)	95.6~14.12 (234개월)
정부 차원	6,153억 (26%)	14,187억 (60%)	1,024억 (4%)	274억 (1%)	23,756억 (100%)
민간 차원	2,243억 (25%)	4,721억 (54%)	1,551억 (18%)	105억 (1%)	8,816억 (100%)
총 계	8,395억 (26%)	18,908억 (58%)	2,575억 (8%)	379억 (1%)	32,571억 (100%)

지난 70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의 경제적 차이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비교에도 나왔듯이 갈수록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되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현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통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협력만 한다면 북한은 중국, 베트남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이고, 북한주민이 원해야 통일이 이뤄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사실입니다. 앞선 통일 시민인 새터민의 남한정착에 NGO단체들의 협조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남북한이 농축산 산업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릴 때에 가축통일을 통하여 사람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다. 북녘동포들의 고통스런 삶이 70년이 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허물과 무관심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자. 유대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맞아 기도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이 올해가 복음적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귀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자.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2010 | Mixed Media | 116.7 x 80.3cm

내 기도가 이루어지이다

최영이

샬롬~

2010년 어느 단체에서 6.25에 대한 작품 100호~50호 싸이즈로 초청이있어 100호는 부담스러워 50호를 그렸으나 완성하지 못해 출품하지 못했습니다.

그해에 천암함 사건이 있었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김연아 올림픽우승,그리고 박지성월드컵우승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북한에서 김연아,박지성과 같은 선수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북한 백성들도 마음껏 문화를 누리며 축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평화통일을 기도하며...

올해는 광복70주년 그리고분단70년이라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기대하며 다시금 준비하길기도드립다^^.

이 모든것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입니다^^ HN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내 사랑 내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아이따족



필리핀 아이타족 선교사 박철환

2004년 1월 16일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어 만난 아이따족.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에서 잊혀져 가던 그들, 12년을 화산재 속 그들을 찾아 다니며 주님의 눈물을 보았기에 그들을 떠날 수 없어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리라 다짐하는 박철환선교사님(필리핀 아이따 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순복음춘천교회 선교 대회 차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선교대회가 어떠셨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이번에 본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을 전부 초청해서 5월 2일~5일까지 선교대회를 했고, 마지막 날에는 교회 출신 국내 목회자들까지 다 초청해서 정말 큰 잔치를 했습니다. 출신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선



교 사역 보고도 듣고 선교사들을 크게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는 등 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출신 선교사들이 모여 보니 여러 나라에서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옛날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지난 추억의 이야기도 나누는 등 너무도 은혜로운 잔치였습니다. 이런 복된 시간을 갖게 해 준 교회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은 주님을 언제 영접하셨나요?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당시 개척교회였던 순복음춘천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부흥회에서 성령세례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198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민족복음화성회에 약혼한 상태에서 자매와 함께 참석했는데, 고김준곤목사님이 한국이 세계선교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선교사가 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영향을 주셨던 인물이나 책,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복음춘천교회가 개척이 되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학생회장도 하고, 부교역자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원로목사이신 김주환목사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이 제 사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필리핀 아이따 족을 사역하고 계신데요, 아이타 족을 소개해 주시고, 어떤 계기는 사역하게 되셨나요?

83년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91년에 빌립보교회를 개척해서 12년간 목회하다가 교단 파송을 받고 2004년 1월 16일에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어 교사인 필리핀 자매가 어느 날 산에 같이 가자기에 도시락을 싸서 앙겔레스에서 2시간을 차로 이동하고, 그 다음엔 차가 갈 수 없어 물소 마차를 타고 몇 시간을 들어갔더니 키가 작고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아이따족이었습니다. 그 자매 교사가 산속 5개 마을을 데리고 다니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 오래전 미국 선교사가 한분이 5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하여 귀국하는데 후임을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

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반군지역으로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곳이라 출입하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자매가 당신이 미국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이 아이따족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따족은 필리핀 루손 섬의 최초부터 살던 원주민들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주해 왔고, 지금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밀려 피나투보 산속에서 원시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991년 6월 그들이 살던 피나투보



산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면서 산 전체가 화산재에 덮여 아이따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정글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먹을 것을 구 할 수가 없는 황폐환 땅이 되었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산을 내려와 도시 근처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도시화된 아이따족으로 필리핀 사람들의 많은 편견 속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속을 떠나지 못하고 산에서 극심한 굶주림과 여러 가지 질병 속에 현대 문명인 전기도 수도 시설도 학교도 병원도 없는 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약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산재로 정글이 사라지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극심한 굶주림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기철(5월 말부터 10월 말)에는 식량을 보내지 않으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우선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32곳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필리핀 목회자들조차 들어가지 않는 아이따족 마을에 보낼 사역자 양성을 위해 임마누엘 성경학교라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 학교가 없는 마을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숙하며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6명의 학생을 대학에 보냈고 올해도 각각 의대 1명, 간호대 1명, 약대 1명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약 한 알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 가는 아이따족들을 위해 작년 6월에 감리교 서울 노원 지방회 평신도 연합회에서 노원 아이따 선교병원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아이따족의 글을 만들어 아이따 마긴디족 성경을 번역하는데 2010년에 마가복음, 2013년에 누가복음, 야고보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번역 인쇄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지금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필리핀 법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살다보니 그 자녀들이 호적이 없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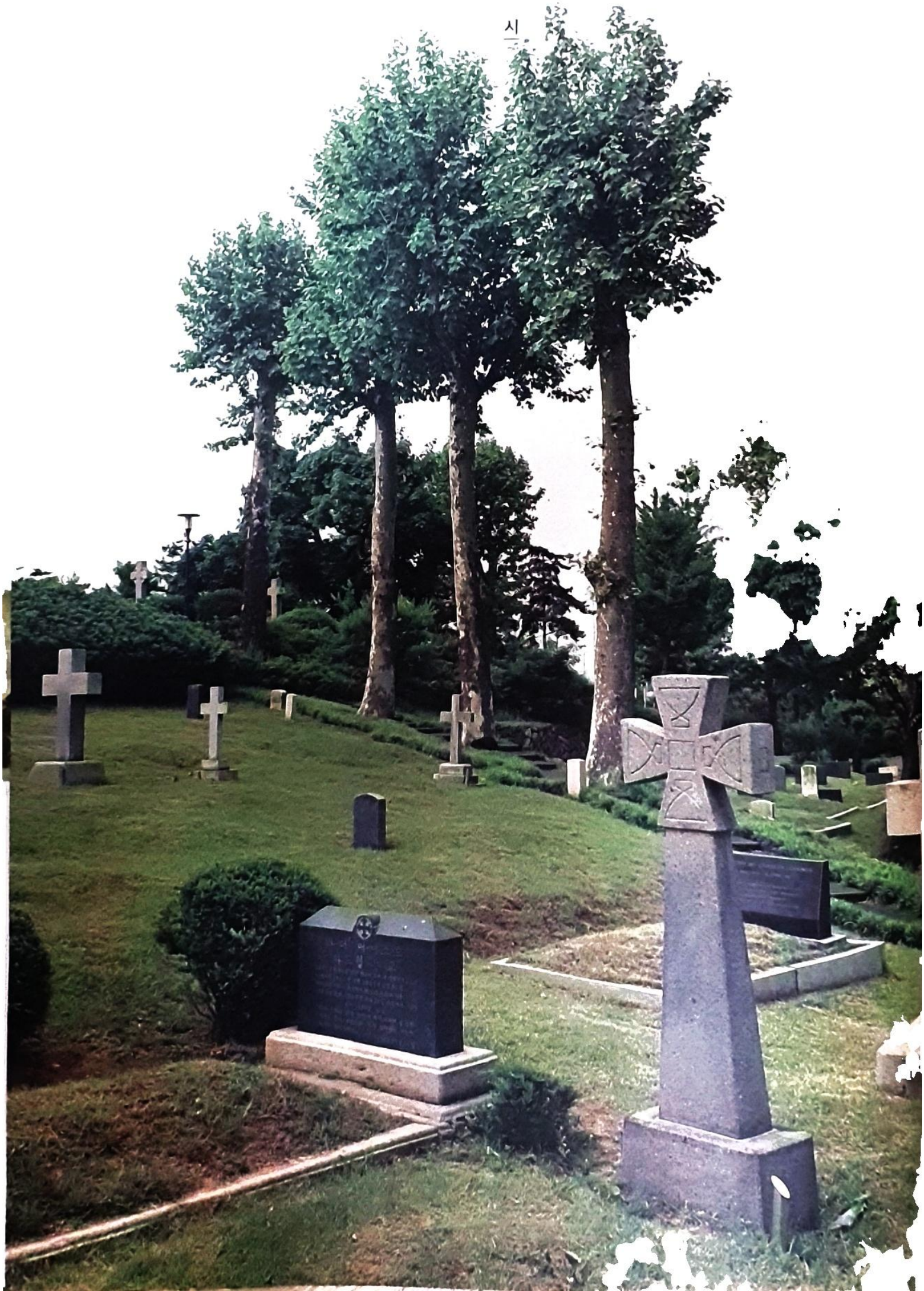
하는 아이따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합동결혼식으로 자녀들 호적을 만들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급식과 산속 아이따족들에게 계속해서 쌀 미숫가루 등의 식량과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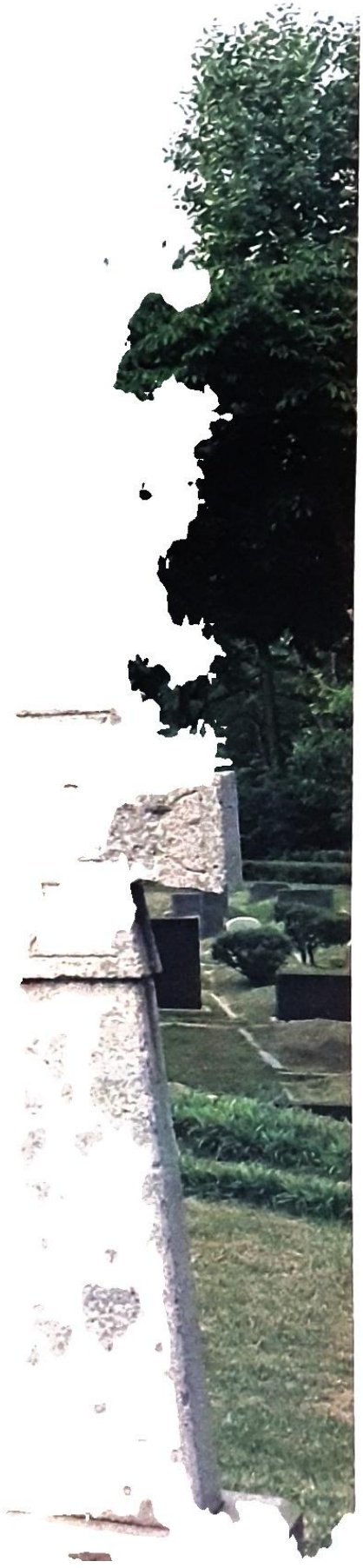
춘천 출신의 선교사님으로서 춘천의 지역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은 전 세계에서 크게 사역을 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한 거룩한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이 춘천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은 부족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에 일꾼들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꾼이 없어서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간청을 해도 못 가는 곳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따족은 1년에 3~4개의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32개 교회를 돌봐야 하고, 신학교까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로 사역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헌신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이 오시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은사가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산에 들어가려면 도시락을 싸서 들어가야 하는데, 제 아내가 매일 몇 십 개의 도시락을 싸는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이 힘이 들어 몸무게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며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물품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에는 다양한 물품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라도 선교지에서는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치약, 칫솔, 수건, 헌 옷가지, 학용품, 센달 등 다 필요합니다. 입지 않는 옷들이나 신발들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기 때에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서 이불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 연합해서 선교지에 물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보내주시면 선교지에서는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6월이 오면

김 용 배
(소양성결교회, 강원CBS선교국장))

6월이 오면
남도(南道) 우리 땅에 남아 있는 핏자국을 찾으려
하늘이 땅에 내려앉는다.

강경, 증도, 병촌, 두암리 ...
그 넓은 벌에 듬성듬성 모여 살던 씨족들이
예수 믿어 개화되었다는 죄명으로
몽둥이와 죽창만으로도 모자라
못질한 교회 안에서 불태워 순교(殉敎)되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백서른여덟이니
천사도(1004島)의 남은 섬 구석구석
이름 없이 스러진
믿음의 형제자매가 얼마나 일까

아! 순교자의 절규일수 만은 없어라
붉은 완장의 인민군패잔병들이 악령(惡靈)되어
떼로 묶어 생매장으로도 모자라
예배당 안에 온 마을을 가두고 불 지르고
예수쟁이들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라며
땅에 묻고
우물에 넣고
궁창에 쓸어 묻기를
말 못하는 1살로부터 환갑노인까지라

순교는
살아있던 육신은 죽고
죽임당한 영혼은 살아남이니
그 후손된 우리 1천만 순교대기자들을 누가 막으랴

끝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은 절개의 영혼들을
우리는 순교자라 부르며
오늘도 무릎 꿇고
내려앉은 하늘 끝을 밟고
그 길 따르기를 기도드린다. 아멘

2015년 5월 국내성지순례길에서..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위해 선교로 내 삶을 드립니다



김홍주 선교사

·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
· 드림장로교회 부목사
· 인도 선교사

• • •

언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셨는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신학교를 졸업 후 2012년 제일장로교회 박상호목사님의 안수(전, 야웨신학교 춘천 캠퍼스 이사장)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고 현재 주말에는 서울 구로구 드림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975년 중학교 졸업 후에 동부교회(김한호목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요한전도사님(현 서울헬로우십교회 담임목사)이 동부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셨는데 고등학생시절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여름방학 중 1,000여명이 모인 고등부 연

합수련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 단국대 사범대학 수학과에 재학 중, 80년도 학내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잡혔고 심한 구타로 두개골이 파손되어(현 인조 두개골 이식) 3개월을 식물인간으로 지냈습니다. 그 후 한동안 기억을 못 찾고, 후유증으로 초점만 보이는 시각장애와 한 쪽 청력도 잃었습니다. 의식을 못 찾고 있는 사이에 서울 상봉교회(당시 이원식 목사)목사님께서 계엄군이 지키고 있던 병원 특실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입술이 움직이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반드시 깨어나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장차 목회자가 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셨다고 합니다. 늘 이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 있어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부르심으로 들렸습니다.

그 후 몸을 회복하면서, 불편한 몸으로 일기와 시를 쓰기 시작했고(현 민예총 춘천지부장), 주님께 다시 살게 된 이유를 묻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휴학 후 복학하여 졸업 후, 강릉명륜고등학교에서 초임교사를 지냈고, 87년부터 현재까지 성수고와 성수여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침 섬기던 제일교회(박상호목사)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내 김경민권사(현, 교동초교 특수교사)를 만나 결혼을 했고, 90년 효자감리교회(김종호목사)개척 시작부터 16년을 섬기고 제일장로교회로 복귀했습니다. 그곳에서 효자교회 온 교인들의 간구와 주님의 은혜로 세 쌍둥이(성은, 성민, 성현)을 갖게 되었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마음에 있기에 제일장로교회 내에 강의실이 있던 아세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지요? 현재 사역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MPS 선교 훈련, 인터콥 선교학교, 선교학 세미나등을 통해 누구나 훈련을 통해 단기선교를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마침 인도 비하르의 이영길선교사를 만나 인도상황을 듣게 되었습니







다. 2002년 첫 단기선교 인도 비하르를 방문하면서 인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또 남인도 첸나이에서 사역하시는 토마스 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는 2003년부터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인도 첸나이에 본부가 있는 Chennai International Bible College(CIBC) 한국 코디네이터 및 교수(2012 인도, 미국CIBC 선교학 명예박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황은 인도 내 5개 주에 40개의 Campus와 네팔 2개, 스리랑카 1개의 Campus가 있고, 2015년 상반기 까지 3,000여명이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재학생은 700명이 있습니다. CIBC 또 다른 사역으로 현지 토마스 남 선교사와 합력하여 학교를 세우기 위해 2만평의 땅을 은혜가운데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삶과 사역에서 힘드셨던 일이 있으셨는지요?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간증을 말씀해주세요

다 죽어가던 나를 살리셔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왜 살리셨을까를 생각하면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도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임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신우회로 모임을 갖고 있고, 방학에는 어김없이 인도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다쳐서 장애가 있는데 나와 결혼하고 세쌍둥이를 낳아 주었으며, 제 상처로 인한 충격으로 파킨슨병에 걸려 병상에 계셨던 부모님을 15년을 섬겨 준 것에 대해 참 감사하고 있



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다쳤던 고통 시간들이 지금은 다 영광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역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감당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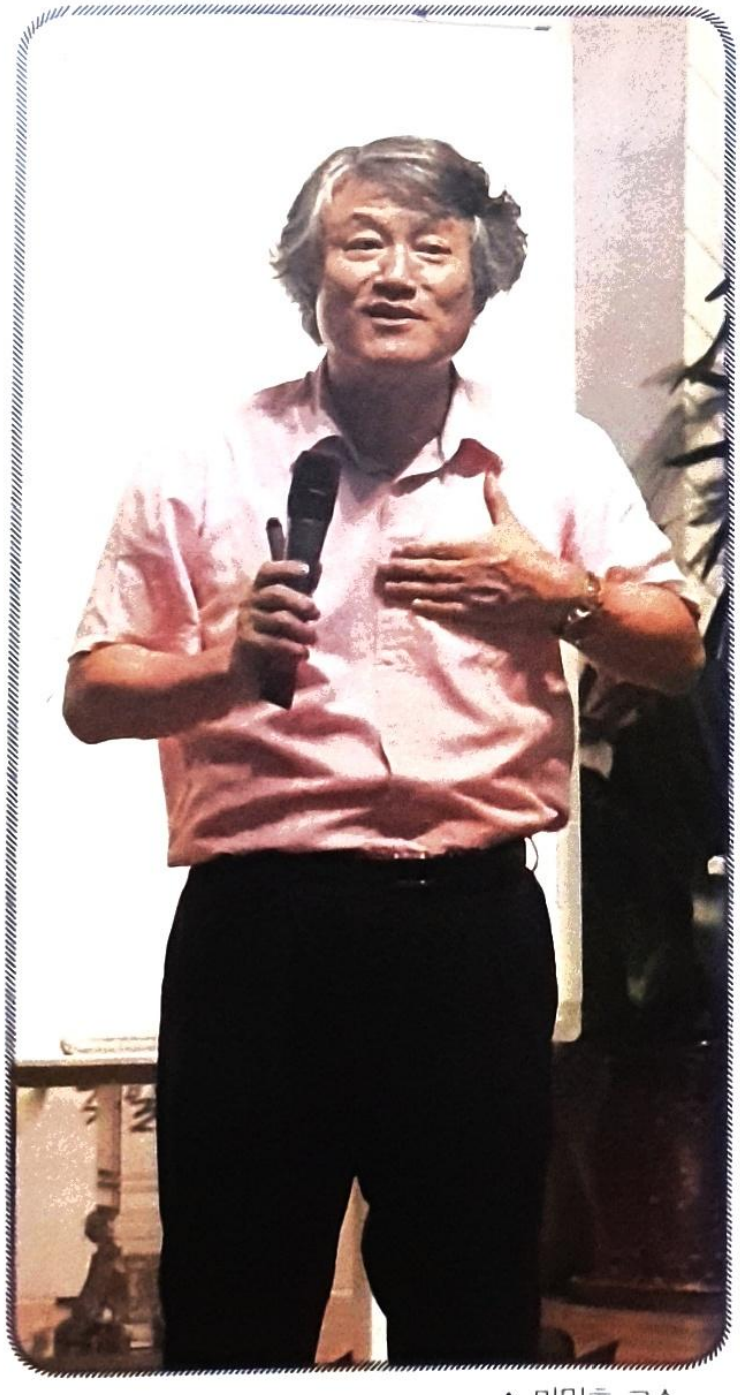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사는 날까지 주의 일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도는 힌두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종교탄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진 복음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위해 비즈니스를 통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교회와 크리스챤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첸나이에 세우고 있는 학교, 보건소, 병원, 어린이집등 건축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취재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월 41차 춘천모임

"동북아 국제 관계와 한반도 통일"

마민호교수 (한동대학교 국제어학부, 정치학박사)



▲ 마민호 교수

통일은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제치하에서 해방(1945년)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외세에 의해 해방을 맞이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단되었다. 통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분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구해야 한다.

통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네 가지 차원의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남한, 2차적으로는 북한, 3차적으로는 남북관계 문제, 4차적으로는 국제관계 문제이다.

1차적 요소로 남한 사람들안에서 의견과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 통일이 가능하다는 담론을 한국 내에서 먼저 만들어 내야 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통일비용 때



문에 반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실은 통일 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눈물, 남한에서 보수, 진보의 싸움과 대립, 젊은이들의 의무입대, 국방비등 모두 분단비용이다. 분단비용은 버려지는 돈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투자비용이다. 분단비용을 통일비용을 바꾸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어온 탈북자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통일시대를 여는 중요한 자원이다.

2차적 요소로 북한이다.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원해도 북한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통일의 중요한 한 축인 일반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 한류 등이다.

3차적 요소로는 남북관계인데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놓아야 한다. 현재는 정치적인 이슈로 채널들이 닫혀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 중국과 대만이 분단국가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중국과 대만 간의 민간교류는 영향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로인해 동질성이 회복되고 있다. 통일과정은 분단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45년 영토분단, 48년 정치 분단, 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족 분단인데, 역순으로 먼저 민족 화해가 되어야 하고, 정치적 동질감 회복과 영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이 존재해야 한다.

4차적 요소로는 국제관계적 요소이다. 통일은 남북끼리만 하는 것으로 알면 안 된다. 통일에 있어 국제관계요소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분단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대륙의 야심을 가진 해양세력과 그런 해양세력을 직대시하는 대양세력 사이에 늘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삼국통일을 위해 대륙세력을

끌어 들였고, 고려와 조선시대, 한국전쟁 때에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도움을 받으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분단되었다. 두 앙숙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어디에서 강대국이 뜨는가에 따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또 2010년도부터 우리를 둘러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 특별히 G2로 부상한 중국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다. 도광양회(어둠속에서 힘을 기른다), 유소작위(힘이 생겨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리라), 대국(화평)굴기(대국이 되었기에 굳게 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전략으로 중국은 2010년 G2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서로의 힘을 견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다. AIIB나 사드의 문제로 보듯이 우리는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제정치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통일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크다.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나라이고, 동북아 질서를 위해 중요한 나라이다. 우리에게는 외교 전략가들이 필요하다. 국제정치적 요소에 대해 지도자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통일을 국제적 담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누구든지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과, 북핵문제와 테러국가 문제등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며 주변국가에 모두 이익이 됨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동대에서는 통스(통일스케치)를 통해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비교해보고, 통프(통일 프로그램)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알리고, 또 "견우와 직녀" 프로젝트를 통해 민족분단의 아픔을 설명하면서 오작교의 까치가 되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변국과 선한 나라들의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통일을 강대국이 원하는 가? 라고 묻지 말라. 통일문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가져와야 하는, 즉, 우리가 주도적이 되어 만들어가야 한다. 명목상 통일은 내일이라도 올 수도 있으나 실질적 통일은 체제상, 동질성 회복등 60~70년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 다음세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실제적인 통일이 되기까지는 만만하지 않다. 긴 사역이기에 더 많은 아픔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YN

취재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6월 42차 춘천모임

일시 : 6월 15일(월요일) 저녁 7시 15분
장소 : 주향교회(이병철목사)
강사 : 주승현 박사(명지대학교)

굿네이버스 네팔 지진 긴급구호



80년만의 네팔 최악의 지진, 최대의 참사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8지진 발생

굿네이버스 네팔 현지 지부는 지진 피해 발생 이후 긴급구호팀 신속히 파견! 현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네팔지진 긴급구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나라 아직 스스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나라 네팔

이곳 네팔에서 굿네이버스는 2002년부터 지역개발사업장을 개소하여 교육 및 보건, 보건의료, 식수위생, 소득증대, 지역사회파트너십 구축, 권리홍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CDP사업장 20개, 결연아동수 25,207명

80년만의 최악의 대지진

2015년 4월 25일(토) 발생한 7.8규모의 대지진은 히로시마 원폭이 동시에 250개가 터진 것과 같은 정도의 강도라고 하는데 5월 07일 기준 사망자 8,413명, 부상자 17,576명, 이재민 800만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60회 이상의 여진과 5월 12일 7.3규모의 지진이 추가 발생하여 추가 사상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굿네이버스

우리단체는 지진 발생 직후인 25일 본부 내 긴급구호 상황실을 설치하고, 26일 긴급구호팀 1진을 네팔로 급파하여 현지직원들과 함께 지진의 진앙지로 확인된 고르카지역에 대책본부를 마련하였고,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로 40만불 규모의 1차 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구호를 위해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좋은이웃

우리단체는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구호물품 전달부터 의료구호팀 활동,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그리고 장기재건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이라 무서웠어요. 지금은 무너진 집 근처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외진 곳까지 찾아와 준 굿네이버스, 정말 감사합니다."

-데부꾸마리 체뜨리(여, 75세)-

긴급구호물품배분

굿네이버스는 진앙지 고르카 지역에 구호단체 최초로 구호물품을 배분했습니다. 지난 25일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 상황실을 설치하고, 28일 피남(Phinam) 마을을 시작으로 총 일곱 개의 마을에 거주하는 8,141가구 4만 여명에게 비상식량, 방수포, 담요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5/15 12:00기준

구호팀 파견 및 이동진료소 운영

피해 주민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진), 삼성서울병원(2진) 의료구호팀이 네팔로 파견되었습니다. 의료구호팀 1진은 고르카 시내에서 5시간 떨어진 소띠 마을에 이동진료소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간단한 치료부터 수술까지 총 75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 네팔에 도착한 의료구호팀 2진은 12일 소띠 마을에 도착해 이동진료소를 설치 한 후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지진 당시 무너지는 집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다 지붕에 왼쪽 손목을 베인 로샨 갈레(남, 18세)는 이동진료소까지 네 시간을 걸어와 열흘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친 후 처음으로 받는 치료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됐는데 안심이 됩니다. 소독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로샨 갈레(남, 18세)-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로 주민들은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필리핀 하이옌, 시리아 내전을 겪은 아동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에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진행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진 피해 주민들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공간CFS(CFS:Child Friendly Space) 2개 구축 및 PTSD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굿네이버스가 함께 합니다.

장기재건 복구진행

굿네이버스는 학교와 집이 다시 세워지고 네팔 주민들의 생활이 지진발생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장기재건복구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 42개 학교의 90%가 파손 된 고르카 지역에 학교 및 보건소 재건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만들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팔 현장에는 굿네이버스 현지 스텝과 파견직원, 외부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 73명이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땀방울과 좋은 이웃이 보내주는 도움의 손길, 그리고 네팔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 다시 일어서는 네팔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단체는 현재까지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활동 및 장기재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교회와 성도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 / 박미경 춘천 굿네이버스 본부장

후원 참여 안내

- 일시후원금
  네팔 대지진피해 주민 돕기 긴급구호 계좌
  농협 069-01-272544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입금 시 참여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과 기관명을 필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팔 아동들과 주민을 위한 찬양콘서트
  찬양사역자 : 소리엘, 조수아, 김수진
  진행 : 예배 시 사역자를 초청해주시면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 후원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 후원 및 찬양콘서트 문의 : 굿네이버스 강원본부 033-256-5391, 김재민 간사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은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성경책을 열고 처음 마주하게 되는 말씀이다.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쯤은 들어 보게 되는 말씀이다. 가장 처음에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정의이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바로 태초, 즉 인류의 시작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정의를 가정과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들 중 실제로 창조론을 완전히 믿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의 몇 배나 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우주는 빅뱅(BIG BANG)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탄생 되었으며, 지구는 만들어진 지 약 46억년이 되었고, 모든 생명체는 단순 동물에서 복잡한 동물로 진화되었으며, 공룡은 중생대 쥐라기시대에 살다가 멸종되었고,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천천히 진화되어 신생대에 이르러서야 등장했다고 배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과학적 진실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본다.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행하신 창조의 역사보다 지층연대 순서를 더 잘 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혼란스럽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은 진화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셨지만 동시에 공룡은 인간이 생겨나기도 전에 멸종했다. 성경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가정과 학교에는 하나님이 없다. 작은 의심은 성인이 되어 세상의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더욱 큰 의심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정의를 굳게 믿으며 그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창세기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건물을 짓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 그것을 DNA라고 부른다. 신비하게도 사람들은 각각 모두 조금씩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가 있다. 우리의 몸의 설계자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앞의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 몸의 설계도는 설계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려졌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인간은 어느 날 우연히 환경의 변화와 진화의 과정에 따라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외의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학생들의 보건 교과서와 도덕 교과서는 이미 동성애를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으며, 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운다. 각종 매스컴과 방송에서 남장여자, 여장남자가 시청률을 높이는 코믹한 소재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동성간의 사랑을 미화시키는 드라마나 동성애를 소재로 한 웹툰(webtoon)은 어떠한 방어막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정(情)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비판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성과 결혼에 관한 가치관을 지켜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정의와 역할에 대해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

학부모들, 교역자들, 교사들은 이제 '내 자녀는 괜찮아',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녹록하지가 않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태초 이후에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글 / 이한나 (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터 기획조정실장)


강원도 기초학력 16위
전국 최하위권
학교인권조례로 눈가림?
내 아이 성(性)적인 타락
부추기지 말라!!
정치교육, 데모꾼으로
키우기 결사반대!!
강원학교붕괴조례
민병희 교육감 OUT!!
강원학교인권조례
반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범도민대책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최근 강원학교인권조례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왜 반대하는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거 같습니다. 저희가 왜 학교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면을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부모와 교사를 존경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저희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는 대부분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연합 단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학생들 자신들만의 인권을 주장하며 부모와 교사에게 반항하며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의무와 책임을 알고 부모와 교사를 존경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을 주장하면서 외박할 권리,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 시험을 거부할 권리, 가출할 권리 등을 주장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강원도에서만이라도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학부모들이 일어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계속되는 불법, 밀실 행정

강원도교육청은 4월 17일 학교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적어도 14일 전에는 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7일 전에 이를 공지하였으며, 강원도 50% 이상의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에 대한 가정 통신문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밀실 행정입니다. 또한 5월 27일 인권조례에 대한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교육청에서 공지한 바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의 명단 역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무엇이 두려워서 계속 이렇게 숨어서만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정치 데모꾼으로 만들지 말라!

강원학교인권조례 8조에 의하면 학생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홍위병으로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 특정적이고 편향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들에서는 학생인권을 외치는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나 '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자신들의 양심을 강요할 수 없다며 국민의례까지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특정 편향된 정치집단의 홍위병으로 만들도록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를 성(性)해방의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에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동성애)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에 넣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이라고 동일한 내용을 말만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다 2015년 4월 학교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명목상으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 강원도교육청은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동성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속임수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이번에는 임신과 출산, 동성애 조항 등을 삭제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넣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임신, 출산, 동성애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강원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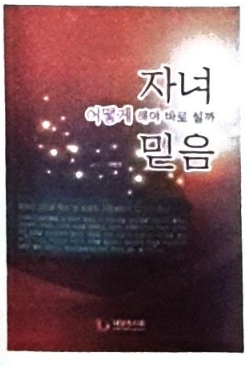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강원학교인권조례 꼭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글 / 한효관 사무총장
http://isarang.org

채병조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믿음의 가정세우기 5가지 원리를 소개하는 "자녀 믿음 어떻게 해야 바로 설까?"라는 책을 발간하신 채병조 교수님을 강원대학교 교수실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교수, 장로, 아버지학교 지부장, 오네시모 선교회 회장 등 섬기는 자리는 마다않고 달려가시는 장로님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고백하시면서, 다음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위해 노력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봉사로 섬기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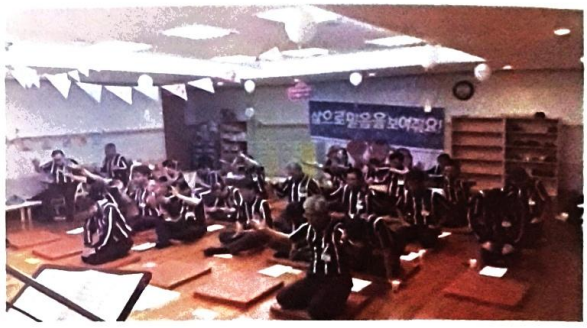
저는 불신가정의 6남매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특별히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고 거의 제 발로 나갔습니다. 아마 나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여전히 '선데이 크리스천' 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가정형편으로 2001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귀국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도 전세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싶었으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뭔가 아쉬워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파트 제공, 넉넉한 월급, 그리고 마음 놓고 대학원에 갈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후 박사학위를 받고 강원대학교에 교수로 왔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창기 춘천 아버지학교 지부장으로 섬기셨다고 하셨는데 섬기게 된 계기와 사역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2004년 두란노 아버지학교 춘천지부를 결성



▲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46기 기도모임

하여 지부장으로서 춘천1기를 개설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아버지학교를 몰랐는데 미국에 갔다가 아버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순복음춘천교회와 뜻을 같이한 중앙성결교회가 연합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학교를 섬기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 그리고 자녀와 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또한 번 알았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으로서만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바쁜 와중에서도 이번에 "자녀 믿음 어떻게 해야 바로 설까?" 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불신가정 종가집 6남매 장남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중에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제목은 우리 6남매 가정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 가는 과정에 사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

다. 그런 와중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하는 짓을 보고 이에 바로 사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야 믿음이 선다는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의 생각을 보태서 책으로 내면 많은 가정, 특히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믿음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이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오네시보로 찬양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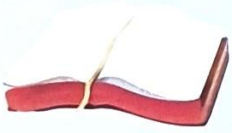
▲ 오네시보로 선교회로 군부대에서 특강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해 주었던 성경 속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방문하여 물질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예배로 섬기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결성하여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은 10명으로 춘천의 몇몇 교회 형제들로 구성되었으며 말씀, 간증, 찬양 등 달란트가 다양해서 매우 유익한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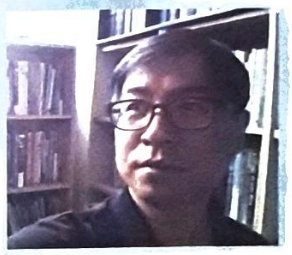
저는 교수직을 은퇴하면 캄보디아 등 농업후진국에 가서 대학강의, 농촌봉사, 선교 등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노력하되 믿음 위에서 세상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실용주의와 물질우선주의에 빠진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실족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성공해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삶은 승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과 믿음의 융합',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의로운 삶 깨끗한 손

사무엘하 22장 20절~27절



최승찬목사 (한결교회)

본문은 말년의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은혜로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함과 동시에,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22장 20절까지는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은혜에 대해 찬양했고, 21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여 상(賞)을 주셨는지 회고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상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한 일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 그에 상응한 보상으로 되돌려 주셨다는 뜻이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회고(回顧)하여 평가하기를, 공의를 따라 깨끗하게 살았고, 계명을 지켜 순종했으며, 하나님 곁에서 늘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늘 완전한 모습으로 죄악을 피했다고 한다.

다윗은 진실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아버지 이새와 일곱 형제에게 따돌림 당하고 머슴 취급하는 상황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양을 쳤으며 이새의 명령대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군말 없이 도시락을 갖다 주었던 착한 아들이자 동생이었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퍼부으며 이스라엘 군대를 주눅이 들게 하자, 소년 다윗은 오히려 용감하게 그와 싸워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신과 부하를 모욕하는 나발을 처단하지 않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 내려놓은 일화를 보라. 여자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 복수를 포기했다. 또한, 무죄한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두 번이나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도 거절했다.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나단 선지자가 단호하게 왕의 음욕과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했다(삼하 12:13). 말만 내뱉지 않았다. 자기의 침대를 눈물로 온통 적시면서 참회했고, 징계를 당하므로 죄

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철저히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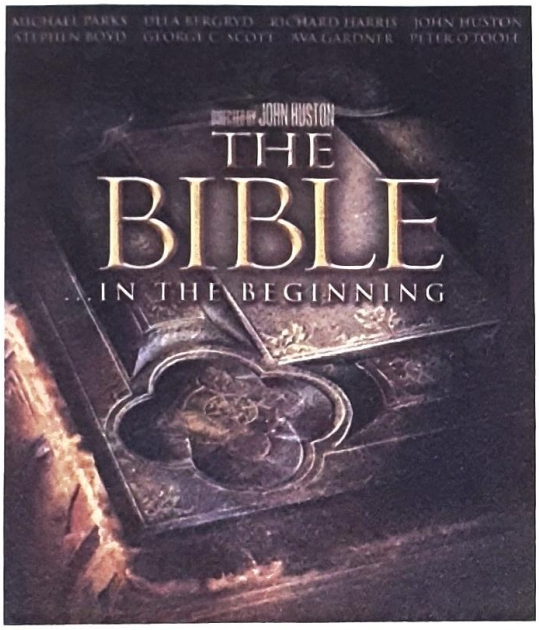
이렇듯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잘못을 저지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썼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 다윗이 세 가지 양상(樣相)으로 고백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22~23절)으로 나타나고 또한,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21,25절)이며, 죄악을 피해 떠나는 것(21,24절)임을 다윗이 고백했다. 서로 다른 표현으로 썼으나 다 같은 의미로 관통하는 원리이자 교리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잘못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공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다거나 죄악을 즐거워한다면 거짓말이다. 공의의 선을 행한다는데 진리를 거스르거나 더러운 죄를 가까이한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작용하고 적용된다.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고 공의와 선을 행하며 죄악을 피하려고 수고한 사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성공해서 트로피 탈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정의와 선을 행하고 죄악을 가까이하지 않는 정결함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도록 사는 비결이 선하고 의로운 삶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즉, 율법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진실하고 깨끗한 손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았다. 혼탁한 세상과 불신앙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 줄 알겠다."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자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렇게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마 5:16).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미국 드라마

더 바이블 The Bible과 A.D. 더 바이블 컨티뉴스 A.D. The Bible Continues



작년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다가 잠시 언급한 〈더 바이블〉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다. 히스토리채널에서 10부작(10episodes)으로 만든 이 드라마는 성경을 고즈넉이 역동성을 살려 옮긴 이 시대 귀한 작품으로 그 정성과 마인드가 매우 바람직한 역작이었다. 노아의 방주,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등을 장대한 내레이션과 일관된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해 호평을 받았으며 케이블 TV 최고시청률 기록을 갈아 엎었다고 한다. 웬만한 사극 못지않게 방대하고 미장센도 뛰어나 매 에피소드가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스케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두 시간여 분량의 극장판으로 축소한 것이 바로 〈선 오브 갓〉이라는데 차라리 이 10부작으로 열심히 끝까지 보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후속작으로 〈A.D. 더 바이블 컨티뉴스〉가 나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NBC TV에서 올해 부활절을 기해서 방영하였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방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자막번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 작성하는 5월 하순 현재 에피소드 7까지 나왔으며 필자는 에피소드2까지 자막번역이 나온 것으로 시청하였다.(예수님이 가야바의 계략으로 빌



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며 제자 앞에 나타난 후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속히 국내방영이 이루어져 많은 이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싶다.

〈더 바이블〉의 제작자 마크 버넷과 로마 다우니가 이어서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예수 역에 아르헨티나 배우 후안 파블로 디 파체를 기용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야고보 시몬 등은 전 세계의 배우들로 채워졌으며 이 두 제작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소설 '신과 우리 모두의 이야기' 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 새 드라마는 〈더 바이블〉 시리즈가 끝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교회의 탄생에 얽힌 고뇌에 가득하면서도 감동 넘치는 길을 추적할 예정이란다. 특히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려내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액션 판타지 형태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이내믹한 전개로 나아갈지 자못 궁금하다.

미국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한 시즌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시즌제로(매 에피소드 40여분 분량 시즌당 20여 에피소드) 상당히 오랜 기간 제작 방영되는 것이 특색이다. 옛날 FBI의 외계인 추적으로 유명한 〈X-파일〉시리즈도 10시즌이나 오래 계속되었던 것을 보면 그렇다. 근래에는 범죄수사물 CSI도 라스베가스, 뉴욕, 마이애미 등 지역별로 나뉘면서 무려 15시즌째나 나가기도 하는데 그 기술력과 역량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성경드라마는 또한 얼마나 박진감 있고 역동적일지 기대가 되지만 또한 기독교신앙과는 점점 멀어지는 듯 하는 헐리우드나 미국방송계의 현 영적 상태에서 이만한 작품이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하며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겠다.

모쪼록 제대로 된 번역자막과 함께 드라마에서 생명력 넘치게 드러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기대하여 보는 것이다.

글 /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보양식 육개장

점점 다가오는 여름 날씨에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맛이 없어 굶고 싶지만 그래도 뭔가를 배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원초적 본능으로 인해 채워 넣어야 할 그 뭔가를 두고 생각하니 이것 또한 나름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다.

더욱이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식당에서 주문한 국밥은 소금을 쏟아 부었는지 너무 짜고 아니면 식초 범벅인 냉면을 먹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럴 때마다 편의점에서 3,500원짜리 도시락을 사먹는 것이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한적도 있다. 그래도 점심시간에는 탕반(湯飯)민족답게 설렁탕, 추어탕, 콩나물국밥, 육개장 등 맛 집을 찾아 밥과 국을 한데 말아 후다닥 먹어치운다. (국밥은 우리나라 역사의 깊은 패스트푸드 음식이다.) 그중에 평상시 마음껏 먹기 힘든 한우 소고기가 나오는 육개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리 가짓수가 많은 분식점에서는 육개장을 사 먹질 않고 이곳 음식점에 찾아간다. 이곳은 개업한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우고기가 맛있다는 소문에 왔다가 우연히 후식으로 된 장찌개가 아닌 육개장을 먹은 후 육개장은 바로 이 맛이다 라는 생각에 필자는 직장과 조금 멀리 떨어졌지만 친구, 동료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자주 찾아가는 육개장 마니아가 되었다.

육개장은 점심특선으로 낮 시간에만 먹을 수 있다

주변에 얼큰하고 시원 담백한 맛을 내는 육개장 음식점은 많다. 하지만 먹을 때마다 혹시 엑기스나 분말, 특히 화학조미료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노파심에 자주 찾지는 않지만 이곳 음식점은 한우전문점이라 한우사골을 오랜 시간 동안 고아낸 후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서 맛을 낸다고 하니 다른 음식점의 육개장과는 달리 맛이 깊고도 담백한 것이 미묘한 차이가 난다. 식기는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금세 식어버리는 냉면그릇(스테인리스 식기) 아닌 뚝배기라 잘 식지는 않지만 다른 곳보다 양이 좀 적은 듯...하지만 먹어보니 필자에겐 딱 맞는 적당한 양이다.



아울러 더러운 곳(비위생적인 곳)엔 맛 집이 없듯이 이 음식점 안은 사장부부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처럼 구석구석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개방된 주방 안을 슬쩍 들어다보니 여러 조리기구등 주방설비에 돈을 아끼지 않은 듯하며 식재료 관리와 양념 통 등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매우 위생적이며 주방을 맡고 있는 여사장은 모든 요리를 할 때는 가족이 먹는 거라 생각하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조리를 한다고 하니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준다.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헤어지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밥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 말은 대부분 빈말이다. 필자 역시 그렇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혼의 양식인 밥을 먹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언제 저랑 교회에 한번가요~"라는 말은 그저 그런 빈말이 아닌 꼭 지켜야 하는 말이다. 그래야 먼 훗날 상급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점심메뉴는 육개장이 어떨는지요? ㅋㅋ

소뚜레

· 위 치: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712-4
(홈플러스에서 김유정문학관 방향 900m 왼쪽)
· 예약전화 : 033)262-7004
· 영업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메뉴 :
(점심특선) 한우육개장 8,000원
한우뚝 불고기 8,000원
한우육회비빔밥 8,000원
(고기류) 한우꽃등심 150g 23,000원
한우육회 200g 20,000원
한우불고기 300g 11,000원

※ 소고기 국내산 한우만 취급
그 외 식재료도 전부 국내산

· 주차장 완비
· 정기휴일 : 첫째, 셋째주 일요일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틱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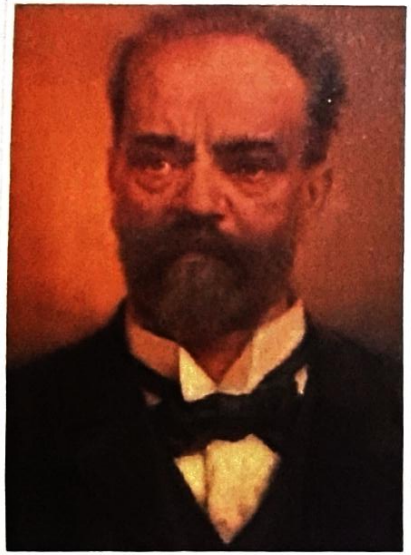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이며 상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한다. 틱은 다른 운동장애들과 대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틱 장애의 발병 연령은 대체로 2세에서 15세 사이로 5세에서 7세가 가장 흔한 발병 연령이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일시적인 틱 삽화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양상을 반복하다가 그 뒤 좀 더 지속적인 틱 증상으로 나타난다. 초기의 증상은 얼굴과 목에 나타나고 점차로 신체하부 즉 몸통, 상지, 하지로 이동하면서 나타난다. 빈번하게 얼굴과 머리에 오는 틱은 이마를 찌푸리거나 눈을 깜박거리거나 코에 주름살을 짓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얼굴을 씰룩거리거나 머리를 끄떡이거나 흔들고 목을 비틀기도 한다. 팔과 손을 급히 흔들거나 무릎이나 발을 흔들거나 걸음걸이가 특이한 경우도 있다. 음성 틱은 '음, 음' 하며 혀를 차거나 말하면서 '끙끙' 거리거나, '악' '윽' 등의 비명 소리를 내거나, 개 짖는 소리,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무엇을 빨거나 입맛 다시는 소리 등을 낸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눈 깜박거림이고 다음이 머리의 틱, 얼굴 씰룩거림이다. 이러한 틱 증상은 한 가지 틱이 없어지면 새로운 틱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전의 사라진 틱이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틱 증상이 교차되어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본래의 단순 틱이 사지와 몸 운동으로 증폭되거나 단순하고 빠른 틱이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근육군을 포함하는 복합성 틱으로 변하게 되기도 한다. 음성 틱도 의미 없는 잡다한 소리들이 단어나 구절로 진행되기도 한다. 드물게 자해적인 틱과 같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운동과 음성 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틱의 전반적인 심각도는 수 주 또는 수 개월에 걸쳐 주기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수면 동안에는 틱의 빈도와 정도는 감소하지만 일부 아동에게서는 수면 동안에도 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초기에는 아동들이 자신의 틱 증상을 깨닫지 못하다가 한두 달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틱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틱 장애에 대한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행동치료와 신경수술적 처지의 세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약물 치료가 틱 장애에서 주로 사용된다. 아동이 갑자기 일과성 틱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증상에 대한 무관심(치료적 무관심)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거나 만성화 된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행동치료가 필요하다.

글 / 이종성 집사 (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A.드볼작 (ANTONIN DVORAK : 1841-1904)의 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 〈SYMPHONY NO. 9: FROM THE NEW WORLD〉 제 2악장

아직 초 여름인데도 벌써 한 여름의 무더위가 찾아와서 서둘러 시원한 것들을 찾게 만듭니다. 속히 무더위를 식힐 한 줄기의 소나기와 가뭄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고국의 유월은 순국 선열들에 대한 엄숙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외로운 트럼핏의 〈IL SILENZIO〉가 흘러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애국적인 주제에 어울리는 안익태 선생님이나 스메타나와 드볼작 같은 향토색 짙은 곡들이 소박한 시골 음식처럼, 소나기 후의 상큼한 대지처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음악을 소개해 드립니다. 체코 프라하 근교의 작은 마을 정육점집 장남으로 태어났던 드볼작은 음악이 좋아서 어린 나이에 가업을 팽개치고? 프라하로 올라와 오르간 학교에 입학했고 나중에 스메타나의 국민극장 관현악단의 비올라주자로 그와의 위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32살에 향토색 짙은 음율로 스메타나 이후 체코의 국민 음악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 알려지면서 마침내 1892년에는 뉴욕 국민음악원장에 취임하여 3년 정도 머물며, 유명한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하여 그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1893년에 쓰여지고, 같은 해인 12월15에 뉴욕 필에 의해 카네기홀에서 초연되면서 〈신세계로부터〉란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곡은 100여년 후에 뉴욕 필이 북한에서 사상 처음 공연할 때, 평양연주회장에서 울려 퍼졌던 잊지 못할 레파토리입니다). 그는 그 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1901년 프라하 음악원장이 되어 후학들을 기르며, 민족적인 음악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는 9개의 교향곡과 10개의 오페라와 많은 오케스트라곡, 실내악곡과 가곡 등을 작곡하였으며, 늘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자연, 조국에 대한 따스함과 애국심을 결코 잊지 않았던 인간적인 작곡가였습니다. 또 하나 함께 감상하셔야 할 필자가 사랑하는 곡 중에서 그의 유명한 〈첼로 협주곡 B단조〉를 추천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체코 프라하 거리의 고색창연한 건물들과 거리와 다리…

그리고 색 바랜 후스 동상에 매혹 당합니다. 거기에 길거리 카페에 앉아 드볼작이나 스메타나까지 감상하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지요?

만천리에서 다니의 음악과 함께, 한 여름 같은 더위 속에서 보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YN

글 / 김금찬 선교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5월1일(금) 오전7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가 라뜰리에김가에서 있었다. 본 이사회에서는 성시화운동을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고, 동질의 신앙과 합의된 목표, 함께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달 갖고 있는 조찬모임이다. 이번에는 20여분의 임원및 이사 목회자가 함께 했고, 특별히 최상도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전략연구위원, 사암성결교회)의 "춘천성시화리포트"라는 주제 발제가 있었다.

순복음춘천교회 세계선교대회 개최



창립43주년을 맞은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는 5월3일(주일)부터 5일(화)까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자!"라는 주제로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다. 11개국 36명의 본 교회출신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3일에는 선교주일과 세계선교대회, 4일에는 선교사 모임, 5일에는 전교인 한마음체육대회와 본 교회 출신 국내목회자도 초청하여 홈커밍데이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원로목사는 격려사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픈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면서 "모처럼 찾아 온 모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으시고 다시한번 용기와 힘을 얻어 돌아가 사역지에서 충성된 선교사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알타이 선교회 한국대표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유기남 선교사는 "참 따뜻하고 뜨거운 환영을 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선교현지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위로와 격려가 되며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수형 담임목사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이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또,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이다. 지역사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전했다.

MCF 조찬예배



군민합동예배인 MCF 조찬예배가 OO부대에서 5월9일(토) 오전 7시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병철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군대앞에서 행진하며"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MCF 조찬예배는 O군단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군민 합동으로 매달 한 번씩 모이고 있다.

홀리클럽 기관 단체장 조찬모임



홀리클럽(황병호장로, 제일장로교회) 기관 단체장 조찬모임이 5월12(화) 오전7시 라뜰리에 김가에서 20여분의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은 김종익목사(교역자연합회 회장)의 말씀선포와 나라와 민족과 평화통일, 강원도와 춘천의 발전과 각 기관 단체를 위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도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세대를 위한 집회 2, 통일세대를 세우라!



"동성애를 바로알자!"는 집회에 이어 다음세대를 위한 두 번째 집회인 "통일세대를 세우라!"는 집회가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5월9일(토) 오후2시에 변수연실장(홀리원코리아 교육지원센타 연구개발실장)의 강의로 있었다. 변수연실장은 "다음세대들에게 잘못 가르쳐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설명했고, 통일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의했다. 또 다음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론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져야 함을 강조했다.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가 탁명수목사(나

눔교회)의 섬김으로 나눔교회에서 있었고, 6월호 199호 편집방향을 논의하였다.

탈북민 도시체험

5월 16일(토)에는 한정협 주최 기독교연합회(지용찬목사) 주관으로 열린 제2하나원 종교문화체험 행사가 제일장로교회(박상호목사)에서 있었다. 50여명의 탈북민들과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였고, 예배와 함께 춘천 시내를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모금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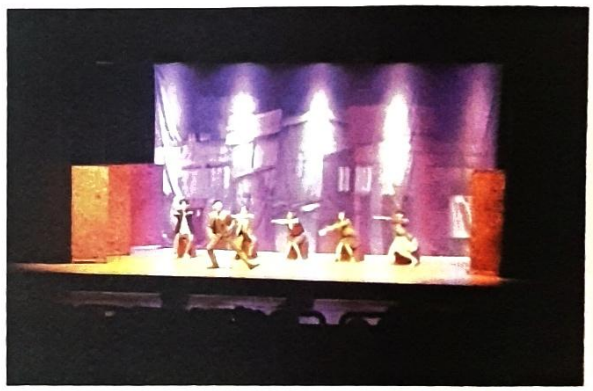


5월 18일(월) 오후2시 시청 앞 광장에서는 월드비전 연중 후원행사인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행사"가 있었다. 이날은 최동용춘천시장, 성기문법원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들이 함께 후원에 참여했다. 월드비전은 금번 모금행사를 통해 "강원도 소외 아동지원과 아프리카 우물파주기, 교육, 의료사업 지원"을 하게 된다.

이슬람선교학교 종강식

5월26일(화) 저녁7시에는 FIM선교회(유해석목사)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슬람선교학교 종강식이 있었다. 금번 이슬람선교학교는 3월17일(화)에 개강되어 9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CCF(박인관목사)주관, FIM선교회 춘천지부장 윤대영목사(춘천사랑의교회)의 주최와 후원으로 예광교회(조영춘목사)에서 진행되었고, 차후 이슬람선교학교 II도 개강할 계획이다.

제20회 음악과 강연의 밤



5월26일(화) 저녁7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는 강원대학교 기독교수선교회(이일세교수) 주최, 기독교선교단체연합 주관으로 청년 대학생을 전도하기 위해 올해로 20년째 열리고 있는제20회 음악과 강연의 밤이 열렸다. 금번 행사에서는 뮤지컬공연 "메리골드"와 김형국목사(나들목교회)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선교단체 소식

· JDM

5월 21일(목) 저녁7시30분 JDM훈련센터(윤태호목사)에서는 한국제자훈련원 25기 단기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JDM 세



네갈의 선교역사를 이어갈 모니카 간사가 임명을 받았다. 모니카간사를 통해 세네갈과 불어권국가에 하나님의 복음 가득 전해지도록 간구해주세요!(이승수기자)

· 어린이전도협회 – 새소식반

새소식반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주일학교가 생기다.

5월 19일에 봄학기 새소식반 강습회는 종강하며 꾸준히 새소식반을 진행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로 어린이들을 연결시켜주시며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없던 교회가 주일에 어린이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토요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새소식반 때문입니다. 사정상 한주 빠진 적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실망하며 힘이 빠져있는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먼저 나와서 선생님을 기다리며 맞이해주는 아이들, 500원짜리 복습게임 선물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 매우 귀엽고 하나님께서 무진장 사랑하는 어린이들 참으로 귀합니다. 새소식반 선생님이여서 행복합니다. (김마태기자)

· 예스컴 – 신나는 체육대회



5월25일(월)에 효제초등학교에서 예스컴 체육대회가 있었다. 50여명의 학생들과 15명의 스텝들이 참여했는데, 신나게 물싸움도하고, 축구도하고, 스피디한 게임도 하면서 학교별로 친목을 다지고, 공부로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날려 보낸 즐거웠던 시간이었다.(길선희기자)

· CCC – 어린이날 행사 마련



5월 5일을 맞이하여 춘천교대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다. 교대 CCC학생들과 솜사탕과 와플을 무료로 나눠주며 800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장소영기자)

취재 / 성시매거진 편집부

2015 쥬빌리청소년 여름캠프

통일 걱정없다 드루와!

2015. 7. 22-25
수안보 드림리조트



오프닝공연 춤추는 예배자 PK



찬양집회 위트니스 그레이스 노트

* 탈북 청소년들은 특별한 혜택으로 초대합니다. 문의해 주세요.

강사진

김정윤 목사 (빛트인교회 담임)
마민호 교수 (한동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송원근 목사 (평화나눔재단 공동대표)
이관우목사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 (PN4N 대표)
이병철 목사 (춘천 쥬빌리 대표)
윤성종 목사 (기독교 북한선교회, 통일교육강사)
김아라 자매 (탈북 연예인, 이만갑 출연)
이나영 강사 (통일교육강사, 북한학 전공)
배윤정 강사 (통일교육강사, 북한학 전공)

캠프 내용

- 주 제 : 주여, 칠십년이 찼나이다! (렘 29:10)
  부제 : " 통일 걱정없다, 드루와 (들어와) ! "
- 대 상 : 전국 기독 남북 청소년, 사역자 , 학부모
- 회 비 : 7만 5천원 (3박4일)
- 입금계좌 : 신협 131-017-768868
  이병철 (청소년쥬빌리)
- 문 의 : 백형열 목사 (010-4458-0100)
  드림리조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번지
  TEL : 043-857-7100~1)
- 주 최 :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주관 : 연합주니어쥬빌리

만평



다가오는 여름!
육신의 다이어트보다
세상욕심을 줄이는
다이어트에 힘쓰자!

그림, 글 / 이관형 기자

예향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부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일화에 보면, 청년 빌리 그레이엄은 몇 명의 아가씨들을 놓고 신부 후보로 재고 있었다. 그 중에서 장차 아내가 된 루스 그레이엄에게 토요일 밤에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랬다가 거절을 당했다. 그 이유는 주일을 경건하게 준비해야한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청년 빌리 그레이엄의 마음을 더욱 흡족하게 하였고, 결국 루스 그레이엄과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루스 그레이엄의 아버지는 25년간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했다. 루스 그레이엄은 고등학교 때에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기도 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특별히 한국을 사랑했다.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루스 그레이엄은 90세까지 행복하게 동행하였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성경말씀을 보았다.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에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함께 손을 잡고 꼭 기도했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한 부부인가?

글 / 최상도 기자

선교단체를 위해 도고해주세요.

[ESF]

· 여름수양회에 8명이상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누리도록

· 매주 있는 모임을 통해 복음을 깊이 알고 기독청년으로 살아가도록

[JDM]

· 대학집회에 춘천지구 200명의 지체들이 목표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 8월에 졸업하는 지체들의 진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밝히 보이도록

[GBT]

· GBT총회와 28일(주일) 춘천지부 연합예배가 성령충만함을 무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 8~11일 지선학 평가회가 전국의 지부 사무장들에게 재충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어린이전도협회]

·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에 은혜 부어 주시며, 3일클럽 전도자훈련에 조장과 훈련생을 보내주소서

· 성경캠프에 등록, 준비, 진행이 순조롭게 되며 어린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IVF]

· 여름수련회(6/30~7/4), 여름훈련(7/6~11)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며 말씀을 통한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전국리더대회(7/13~17), 일삼축제(7/29~8/1)를 통해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품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많은 여름 사역 중에도 간사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예스컴]

· 예배와 기도모임이 이루어지는 각 중고등학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각 중고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간사와 핼퍼들에게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스텝수련회를 통해 여름 사역에 필요한 영적, 지적 능력들을 채워주소서

[CCC]

· 준비하고 있는 전국 여름수련회에 춘천지구지체들이 흔들리지 않고 참여케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 안에서 깊은 영육의 회복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경험케 하소서

· 광주유니버시아드 1600명의 CCC자원봉사팀의 섬김을 통해 각 국의 외국 대학생 선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게 하소서. 준비하고 있는 일본과 동아시아 단기 선교와 1년 단기선교사 파송(동아시아/카자흐스타) A6캠퍼스 개척팀(잠비아/멕시코)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도 예배하심 가운데 넉넉히 채우소서

[DFC]

· 캠퍼스복음화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깊이 있게 드려지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여름사역들이 풍성한 가운데 힘있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인터콥]

· 월드미션을 통해 개인과 교회, 춘천지역과 나라, 열방에 예배가 회복되고,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열방에 섬기기 위하여 시니어 2명이 라오스로, 청년 2명이 중국 회족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으로 나가는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무장되어 사랑과 복음으로 각 민족영혼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 청년대학생 및 여성&남성 시니어 선교캠프를 통하여 청년들이 거룩과 성결로 일어나고, 여성&남성 시니어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도록

[예수전도단]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의 각 사역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간사들과 간사들의 가정을 더운 날씨속에서 지치지 않고 건강함으로 보호하소서

·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예배하는 중보기도가 춘천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무슬림으로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시간을 통해 열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소서

27기 2015년 여름
선교사훈련생모집

신청 및 접수
국제선교훈련원(IMTI)
T. 033/243-6704 F. 243-6705
E-mail : jdmnmission@한멜

JDM 여수제자운동

2015. 7.6MON - 24FRI 3주

지원서 다운로드 www.jdm1.or.kr/xe/jdmmission_mti

27th
IMTI
SUMMER
QUARTER

모집대상 선교에 관심을 갖고 훈련 받기 원하는 자
장,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자

훈련비용 1인 500,000원 / 부부 800,000원

훈련일정 2015년 7월 6일(월)–24일(금) 3주

강의내용 요나서, 세계선교사, 팀사역, 타문화 이해
선교적제자도, 선교의 성경적 이해, 건강한 자아상
만들기, 단기선교사론, 선교현장 이야기, 영어, 영어예배

* 강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imti 국제선교훈련원



알려드려요

춘천홀리클럽

1.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2.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장소 : 후평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한마음 조기탁구회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회비 : 월4만원
☎ 010-3375-4323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장소 : 춘천은혜교회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화요모임 헌신자 모집

대상 : 현대무용 워십찬양율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20분
장소 : 우두동 벧엘교회 2층 주일학교 예배강당
☎ 010-9495-1029 한혜영 집사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탁구대 무료기증 받습니다

☎ 예수제자교회 010-3771-0834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1-5652 입원상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일시/시간 : 평일 월~금,(주5회) 오후 17:30 ~ 19:30
장소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뮤지컬 관람 등)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254-7244(내선3번) 심효선 사회복지사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가보자!!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후원자 안내

"여러분이 성시화운동의 기수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 후원에 동참하는 단체 및 개인을 소개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윤덕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상만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홍금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주희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석호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조영순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경자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하명수 한건영 한명수 한정연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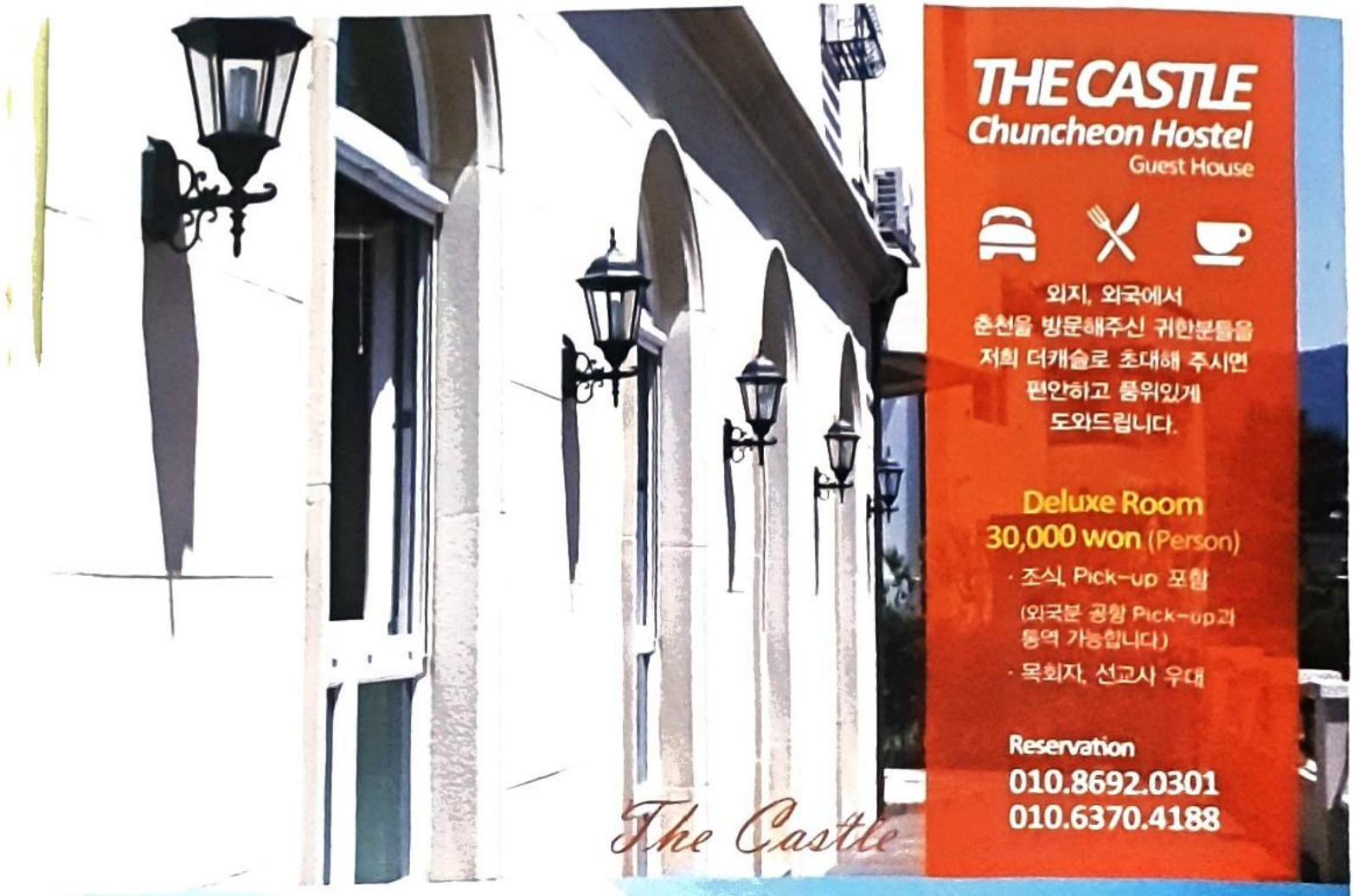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기관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아가갤러리 성시무용단 춘천YWCA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033)-256-1260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HE CASTLE
Chuncheon Hostel
Guest House

외지, 외국에서
춘천을 방문해주신 귀한분들을
저희 더캐슬로 초대해 주시면
편안하고 품위있게
도와드립니다.

Deluxe Room
30,000 won (Person)
· 조식, Pick-up 포함
(외국분 공항 Pick-up과
통역 가능합니다)
· 목회자, 선교사 우대

Reservation
010.8692.0301
010.6370.4188

아미교회 설립 1주년기념

김인중 목사 초청

안산동산교회 담임목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사장

일일특별세미나 및 연합부흥회

일시 6월 18일(목)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30분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집

KAICAM **아미교회** 담임목사 이 연 희

강원도 홍천군 서면 석화촌 40길(어유포리 144번지) 문의 010-6362-9456

[고속도로안내] 경춘고속도로 강촌 · 남춘천IC 10km 대명비발디 방향 (뒷면참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1장 11절

주최/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Blessing Chuncheon 2015

블레싱 춘천

일시/ 6월 26일(금요일) 오후7시~새벽1시

장소/ 순복음 춘천교회(이수형 목사)

강사/



이태희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김재헌 박사
(KIATS)



차성도 교수
(강원대학교)